

가정외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강 현 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우 석 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 현 주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un Ah Kang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eok Jin Woo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Fellow : Hyun Ju Kang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실천적 함의

References

Abstract

Drawing o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theory, the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s of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We collected data from 494 children living in out-of-home services, including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 foster care homes, and group homes.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as used. In addition, the IV (instrumental-variables) estimation was utilized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reverse causality. The level of children's social capital was measured through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friends, parental monitoring, etc. The level of children's cultural capital was measured by their cultural activities, such as going to museums,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lacement history in out-of-home service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We found that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nd delinquency affected the academic

Corresponding Author : Seok Jin Woo, Department of Economics, Myo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Tel: +82-43-300-0680 Fax: +83-43-300-0654 E-mail: genoswoo@gmail.com

* 본 논문은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06).

achievement of the children. Cultural capital, but not social capital, positively affected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were discussed.

주제어 (Keywords) : 가정외 보호서비스 (out-of-home care), 학업성취 (academic achievement),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문화적 자본 (cultural capital)

I. 서론

가정외보호아동(children in out-of-home care)은 학대 및 방임, 가정해체, 부모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신의 친가정이 아닌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시설이 주요한 가정외보호서비스로서 역할을 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가정위탁과 그룹홈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화되었다.

가정외보호아동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주로 시설아동들이 겪는 사회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Nho & Jang, 1998; Yoo, Min, & Kwon, 2001)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가정위탁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들(Huh, 2008; Kim & Chung, 2009; Nho, Kim, Park, Kang, & Shin, 2008; Yang, 2009)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Choi, 2007; Lee, 2007; Sung, Yi, & Lee, 2001)이 다소 진행되었을 뿐이다. 아동의 학업성취는 성인기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가정외보호아동의 중요한 발달영역에 대한 실증자료가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위탁이 주요 가정외보호 형태로 자리 잡은 미국은 5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미국에서도 위탁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사회적 욕구에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성취에 대한 연구 관심은 비교적 늦게 형성되었다(Trout, Hagaman, Casey, Reid, & Epstein, 2008). 미국의 가정위탁아동들은 학교성적이나 고졸업률 및 대학졸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Blome, 1997; Festinger, 1983; Merdinger, Hines, Orterling, & Wyatt, 2005; Sawyer & Dubowitz, 1994). 이러한 저조한 학업성취도는 성인기 적응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연구결과(Buehler, Orme, Post, & Patterson, 2000)도 보고되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영미권에서는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요보호체계 관련 요인(보호유형, 보호배치횟수 등), 양육환경(통제적 양육환경, 비 일관적이거나 부정적 양육태도 등) 등

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llins, 2001; Colton, Heath, & Aldgate, 1995; Courtney, Piliavin, Grogan-Kaylor, & Nesmith, 2001; McMillen & Tucker, 1999; Mech & Fung, 1999; Shin, 2003; Zimmerman, 1982). 그러나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자원, 특히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양육자가 제공하는 자원 중 무엇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양육자가 제공하는 자원 중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 등 관계적 요소와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적 자원 등 인지적 요소를 들 수 있다(Bourdieu, 1977; Coleman, 1988). 특히 이러한 요소는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과 문화적 자본이론(cultural capital theory)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유대, 애착, 소속감 등과 같이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나 네트워크에 내재하는 자원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양육자가 아동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애정으로 개념화될 수 있고, 아동의 문화적 취향이나 인지활동을 북돋아주는 환경요소는 특정계층이 향유하는 문화활동, 문화적 선호,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일종의 자원으로 개념화한 Bourdieu(1977)의 문화적 자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아동과 양육자의 애착과 관심, 친구관계, 지역사회환경 등과 같은 가정 내, 외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외보호 양육환경에서 문화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문화적 자원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문화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여,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문화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그들의 양육환경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으로 일반아동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자본에 대해 가정외보호서비스 환경에서도 대리적 양육자를 통해 제공될 때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사회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문화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 요인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연구인 Fanshel와 Shinn(1978)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가정위탁아동이 자기 또래집단에 비해 읽기와 수학성취도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위탁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호 유형(McMillen & Tucker, 1999; Shin, 2003), 배치횟수(Zimmerman, 1982)등의 요보호체계 관련 요인의 영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양육환경과 관련해서는 통계적 양육환경, 잦은 전학, 비일관적이거나 부정적 양육태도 및 낮은 양육자감독 및 관심 등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urtney et al., 2001; Heath, Colton, & Aldgate, 1989; Mech & Fung, 1999). 약물남용과 같은 위탁 청소년 개인의 문제행동도 학업성취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03).

이렇듯 위탁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알려진 편이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축적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다. 소수의 연구이지만 몇몇 질적 연구들(Hass & Grayton, 2009; Jackson, 1994; Jackson & Martin, 1998)은 위탁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지지해주는 위탁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Merdinger 외(2005)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 양육자의 지지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ang(2005)의 연구에서도 미국 위탁아동의 읽기와 산수 점수 모두에 양육자와 아동의 애착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양육자의 애착이나 지지적 관계의 중요성은 교육 사회학 연구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아동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동에게 문화적 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가정의 문화적 자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학업성취 요인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이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부분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아동 학업성취 요인: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람 간의 관계 구조에 내재되어 있으며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적 행위를 증진시키며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생산적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은 특히 강한 유대, 애착, 신뢰, 소속감, 의무감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Coleman, 1988). Bourdieu가 상류층 전문가 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한 사회적 관계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한 데 비해, Coleman은 계층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본은 보유한 이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Field, 2003). 특히 아동은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며, 이는 곧 부모가 가진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전달되는 매개체가 되어 특히 아동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1994).

이러한 Coleman의 이론적 가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측정되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Furstenburg & Hughes, 1995; McNeal, 1999; Parcel & Menaghan, 1993; Teachman, Paasch, & Carver, 1997)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한 요소는 부모의 애착적인 양육행동이다. Coleman(1988)에 의하면,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부모 자녀 관계 유대감(bond)에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되는 부모-자녀 간 긴밀한 유대 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행동을 유발한다. 또한 이 관계는 일종의 통제로 작용하여 자녀도 부모의 기대와 규범(norm)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게 된다(Parcel & Menaghan, 1993; Portes, 1998).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지게 되는 등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 외부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는 학교에서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라든지 지역사회 환경도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포함될 수 있다(Kahne & Bailey, 1999).

국내에서도 아동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져서 일반아동(An, 2003; Kang, 2007; Kim, 2000; Kim, Choi, & Lee, 2009; Kim & Kim, 2008; Kim & Lee, 2007) 뿐만 아니라 빈곤아동(Kim, 2011; Shin & Kang, 2008)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친가정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대리양육자에게 양육되는 가정외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2)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과 함께 문화적 자본 역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문화적 자본

을 처음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Bourdieu(1977)는 주로 상류층의 문화 활동, 문화적 취향,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일종의 자원(resources)이며, 이를 문화적 자본으로 개념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학교는 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적 구조, 권위적 패턴, 교육과정 형식을 선호하고 활용한다. 따라서 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 익숙한 상류층 아동에게는 학교적응이 훨씬 수월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상류층이라는 계급은 그 아동들에게 학업성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주며, 높은 학업성취 획득은 상류층 계급을 또 다시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Bourdieu의 문화적 자본 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cultural reproduction model)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은 Bourdieu의 문화적 자본 이론의 영향으로 학자들은 사회계층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가 달라지는 이유를 계층에 따라 보유한 문화적 자본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Lareau, 1987).

Bourdieu의 문화재생산이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도 제기되었는데, 대표적 이론 중 하나가 DiMaggio의 문화이동이론(cultural mobility model)이다(Kim & Byun, 2007). Bourdieu가 문화적 자본이 주로 중상류층 이상의 계급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 데 비해, DiMaggio(1982)는 최근 대중매체의 발전과 대중문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문화적 요소는 계층과 큰 상관없이 향유되고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빈곤 아동은 상류층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문화를 동경하여 고급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계층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류층 아동집단은 자신이 평소 익숙한 고급문화보다는 청소년 하위문화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적 자본은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DiMaggio(1982)는 이런 주장과 함께 실증연구를 통해 문화적 자본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미국의 고등학생 학교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특히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문화재생산이론의 가설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에게 영향력을 보인 것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문화이동이론의 가설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에게 문화적 자본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DiMaggio(1982)는 남자청소년들은반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가치관에 더 순종적이기 때문에 상류층 여자청소년들이 부모와 자신이 속한 계층의 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계층에 대한 문화적 자본의 영향을 학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서 바라보았듯이, 문화적 자본의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측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De Graaf, De Graaf, & Kraaykamp, 2000; DiMaggio, 1982; DiMaggio & Mohr, 1985; Kim & Byun, 2007)에서 가장 빈번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아동 및 부모의 고급문화 활동 참여이다. 여기에는 음악회나 미술관에 간다거나, 독서 활동 등이 주로 포함된다(DiMaggio, 1982).

한편 국내에서도 문화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Kim과 Byun(2007)은 문화적 자본이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독서활동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반해, 다른 문화 활동 참여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학생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문화 활동 참여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Kim과 Lee(2007)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결과가 다소 달라, 문화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자본과 함께 남학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연구(Chang, 2002)에서도 문화적 자본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 외에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문화적 자본의 영향에도 관심이 증가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문화적 자본이 적었으나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Cho & Kang, 2011). 다른 연구(Kim, 2011)에서는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학업성취에 문화적 자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오히려 빈곤아동의 학업성취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문화적 자본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DiMaggio(1982)의 문화이동모델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가정외보호아동의 문화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함께 문화적 자본이 가정외보호아동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가정외보호아동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달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친가정이 아닌 양육시설, 그룹홈, 혹은 가정위탁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며, 전국

단위로 표집되었다.¹⁾ 군집표집방식을 활용하여 우선 보호유형 별 중앙기관(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중앙가정위탁센터)을 통해 전국 시설 및 센터 수를 목록화하였다. 그 다음 비례확률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각 보호유형 별로 참여 아동이 100명이 될 때까지 시설(혹은 센터)를 무작위표집하였다. 선정된 시설(혹은 센터)에서 연구대상(12-13세)에 해당되는 아동은 모두 참여가 가능한지 의사를 확인하고 시설 측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는 다시 다른 시설을 무작위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참여시설(혹은 센터나 위탁가정)수는 양육시설 26개, 그룹홈 77개, 가정위탁센터 17개가 조사되었으며, 아동수는 총 494명이 본 연

구대상이 되었다(시설아동: 137명- 남 78, 여 59/ 그룹홈 아동: 119명-남 56, 여 63/ 일반위탁: 41명, 대리위탁: 135명, 친인척 위탁: 62명-남 117, 여 121).

2. 주요 변수

Table 1은 주요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및 신뢰도수준을 제시하였다.

1)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학업성취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아동이 ‘아주못함’ 부

Table 1.
Measurement of study variables

Variables	Definitions and measurement	Chronbach α
Gender	male = 1, female = 0	-
Self-esteem	Rosenberg's (1965) 10 items	.773
Depression and anxiety	Achenbach's (1991) YSR (Youth Self-Report), 13 items Oh et al(1998) standardized	.890
Delinquency	Lying, running away, setting fires, cursing, absence, alcohol abuse, etc. 12 items utilized in Korean Children Panel data	.764
School bullying	Experiences of being perpetrator (6 items) or victim (6 items)	.755
Level of healthiness	1 item asking how children perceive their own healthiness	-
Attachment to father	Three items utilized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²⁾	.901
Attachment to mother	Utilized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918
Positive parental attitudes	Six items utilized in Panel Study on Foster Care Children	.885
Parental monitoring	Four items utilized in Korea Youth Panel Survey ³⁾	.778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Eight items utilized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814
Community environment	Six items utilized in Panel Study on Foster Care Children	.563
Cultural capital	Frequency of accessing cultural resources or participating in cultural activities	.614

Table 2.
Educational performances of children in care and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¹⁾

Categories	Number of children	Mean	Standardized deviation
Children in care	481	0.010	0.818
Institution	133	-0.221	0.744
Group home	118	-0.259	0.906
Foster care	230	0.282	0.721

1) Standardized in Z-scores

- 가정의 보호유형은 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보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다시 대리, 친인척, 일반가정으로 위탁 가정의 유형이 나뉘어진다. 각 유형별 조사기관수와 조사아동수는 아래에 설명하였다
- 한국아동패널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조사되는 것으로, 조사내용은 아동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여,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족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집된 자료임.
- 한국청소년패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된 자료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Children in care		
	Observations	Mean	SD
Positive relationship with friends	490	3.13	0.69
Parental monitoring	487	2.84	0.74
Positive parental attitude	489	3.05	0.69
Community environment	482	2.86	0.46
Cultural capital	463	-0.13	0.55

터 '아주잘함' 까지 5점 척도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성적 전반이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과 주요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각각이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으로 모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간 측정방법의 차이점과 해석의 편의를 고려해 획득된 데이터는 Z-점수로 변환하였고, 이후 이들을 합산변수로 바꾸었다.

먼저, 아동들의 학업성취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이 0.01, 표준편차가 0.82로 나타났다(Table 2). 학업성취도의 분포를 보호유형 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위탁 아동의 평균 학업성취도가 0.28로 시설과 그룹홈 아동의 -0.22와 -0.26 보다 높은 편이다. 보호아동의 특정 보호유형 편입이 거의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학업성취도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편, 표준편차의 경우도 위탁에 비해 시설과 그룹홈이 좀 더 커서, 보호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평가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독립변수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적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 양육태도(6문항), 양육자 감독(4문항), 친부애착(3문항), 친모애착(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가정 외 사회적 자본으로는 긍정적 친구관계(8문항)와 지역사회환경(6문항)을 고

려하였다. 문화적 자본으로는 문화적 취향보다는 문화적 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문의 정기구독 여부, 악기 등의 연주 여부, 박물관 혹은 미술관의 방문 여부, 영화를 포함한 공연장에 갔었는지의 여부, 교과서 외의 다른 책들이 있는지 등 여부를 고려하여 모두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Table 3 참조).

3) 통제변수

위의 관심변수 이외에도 통제변수로서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변수와 개인 심리사회적 적응변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을 보다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져왔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개인특성에 해당되는 성별과 건강상태인식 등 일반적 변수 외에 해당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외보호의 특성들도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예컨대, 보호유형(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의 3개 유형으로 나뉘), 요보호기간(원가정분리기간을 월단위로 측정-아동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질문), 배치 횟수(현재 지내는 곳과 다른 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 아동이 배치되었던 횟수를 측정-아동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질문), 부모 생존여부를 통제하였다.

한편,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변수의 경우에는 '나는 가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rol variables

Variables	Children in care		
	Observations	Mean	SD
Foster care = 1	494	0.48	0.50
Duration in care (month)	449	71.60	43.60
Number of placement	494	0.29	0.66
Level of healthiness	493	4.22	0.82
Self-esteem	480	2.93	0.48
Depression and anxiety	490	1.38	0.39
Delinquency	492	1.13	0.19
Perpetrator of bullying	494	1.53	0.64
Victim of bullying	494	1.33	0.47

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10개 문항의 자아존중감,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등 13 문항의 우울/불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가출한다.’ 등 12문항의 비행,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일부러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근거린 적이 있다.’ 등 학교폭력피해 6문항과 ‘다른 아이들을 일부러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근거린 적이 있다.’ 등 학교폭력가해 6 문항을 고려하였다(Table 1과 Table 4 참조).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와 STATA 11.0 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용하고 있는 회귀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quad Y_{ij} = S_{ij}\gamma + C_{ij}\gamma_c + X_{ij}\beta + \mu_j + \varepsilon_{ij}$$

여기에서 Y_{ij} 는 보호유형 j (=시설, 그룹홈, 위탁)에 있는 아동 i 의 학업성취도를 지칭한다. S_{ij} 는 아동의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는 벡터이고, C_{ij} 는 문화적 자본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X_{ij} 는 보호유형의 특성을 포함한 개별 아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μ_j 는 보호유형 별 고정효과(fixed effect)이고, ε_{ij} 는 아동의 미관측 이질성이다.

기본적으로 (식 1)의 계수들을 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이용하여 추정하면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문화적 자본은 아동의 학업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보호시설에서의 문화적 자본인 신문, 악기, 박물관 방문 등은 개별 아동의 학업성적과는 체계적인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회귀분석에 있어서 설명변수가 만족시켜야할 외생성 조건(exogeneity condition)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 중 부모애착 변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외생변수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학업성취도 자체가 아동들의 부모 혹은 모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가 높은 아동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거나, 반대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아동이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부모에 대한 애착변수의 경우에는 역인과(reverse causality)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독립변수가 더 이상 외생성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식 2)의 관계가 성립한다.

$$(식 2) \quad E(S_{ij}\varepsilon_{ij}) \neq 0$$

이렇게 내생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도구변수 추정법(instrumental-variables estimation)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도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도구변수추정을 하였다. 좋은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애착과 관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학업성취도의 오차항인 ε_{ij} 와는 체계적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즉, 도구변수 Z_{ij} 는 (식 3)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식 3) \quad E(Z_{ij}C_{ij}) \neq 0, E(Z_{ij}\varepsilon_{ij}) = 0$$

본 연구에서는 보호아동의 부모애착 형성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도구변수로서 고려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만남횟수,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 여부, 부모의 가출여부, 부모의 배우자 폭행 여부에 대한 과거 회고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역시 설문지를 통해 각 한 문항씩 아동에게 질문하였으며, 부모와의 만남 횟수는 ‘전혀 만나지 않는다’, ‘일 년에 한번 정도’, ‘6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이상’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가정외보호아동은 부모와 안정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부모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Jeong, 2002). 친가정에서의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아동이 가정외보호에 배치되어 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자녀를 만나는지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것은 아동의 친가정 복귀에도 영향을 미친다(Kim & Chung, 2009). 이렇듯 이 도구변수로 선정된 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부모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과거 사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이다.

이러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2단계 추정법(2-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2SLS)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⁴⁾ 먼저, 1 단계에서는 내생변수를 도구변수를 포함한 다른 설명변수들에 회귀분석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내생변

4) 추정은 STATA의 ivregress의 2sls 옵션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수의 예측치를 생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생성된 내생변수와 다른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여 계수를 추정하였다. 다만, 2단계에서의 표준오차는 1단계에서의 예측오차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IV. 연구결과

가정의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일련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개인의 특성(모형 (1)),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변수(모형 (2)), 가정 내 사회적 자본변수(모형 (3)), 가정 외 사회적 자본변수(모형 (4)), 그리고 문화적 자본변수(모형 (5))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정의보호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달리 가정의보호에서 성장해온 아동이므로 가정의보호에서의 경험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보호유형, 원가정에서 분리된 기간, 현재 기관(혹은 위탁가정)이전의 배치횟수, 부모사망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도 개인의 특성 변수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부모 애착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하여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방법은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우리가 내생변수라고 판단 하였던 부모애착 변수가 내생적인지 여부에 대해 Wu-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형 (3)의 경우 위 두 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 하에 도출한 Wu-Hausman 검정 통계량 ($F(2,315)$)은 3.07로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⁵⁾ 즉, 위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내생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아동에 비해 그룹홈과 특히 가정위탁 아동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2의 요약통계량과 유사한 결과이다. 정확하게는 위탁 아동이 시설 아동에 비해 0.31~0.47 표준편차 정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또한 과거에 배치횟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5% 유의수준에서 낮았다. 과거 가정의보호 서비스에서 배치 변경을 많이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0.15~0.21 표준편차 정도 낮았다. 하지만, 원가정과 분리된 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정 보호 유형에서 이동 없이 장기간 있는 아동의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그리 낮지 않은 반면에 보호서비스의 잦은 전환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심리사

회적 적응변수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비행은 학업성취도에 부정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아지나, 비행은 반대로 학업성취도를 낮추는 부정 효과를 지닌다. 또는 비행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Lee & Lee, 2011). 또한 아동의 우울불안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 이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가정외아동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본 논문이 설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즉,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 사회적 자본 모두 가정의보호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었다. 양육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정할 수는 없었다. 모에 대한 애착 역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문화적 자본이 가정의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두 번째 가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결과, 문화적 자본은 가정의보호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동이 문화적 자본을 많이 소유할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적 자본이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학업성취도는 0.26 표준편차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적 자본의 증가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V. 논의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가정의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양육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친구 및 지역사회 환경에 초점을 둔 가정 외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하여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문화적 자본은 아동의 문화적 활동과 가정의 문화적 자원 보유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포함한 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행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 높아지는 결과는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5) Durbin의 score 통계량(2))의 경우도 6.4 로 5% 유의수준에서 두 변수가 외생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Table 5.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ut of care (IV estimation²⁾)

	Dependent variabl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1)	(2)	(3)	(4)	(5)
Gender ¹⁾	0.0494 [0.0744]	0.0773 [0.0739]	0.0771 [0.0778]	0.0795 [0.0775]	0.092 [0.0801]
Group home = 1	0.00841 [0.115]	0.0117 [0.114]	0.0749 [0.127]	0.0565 [0.129]	0.0906 [0.130]
Foster care = 1	0.469*** [0.0885]	0.312*** [0.0879]	0.335** [0.113]	0.332** [0.114]	0.436*** [0.118]
Duration in care	0.000745 [0.000949]	0.000693 [0.000962]	0.00157 [0.00105]	0.00151 [0.00105]	0.00165 [0.00103]
Number of placement parents dead = 1	-0.134 [0.0715]	-0.154* [0.0743]	-0.191* [0.0859]	-0.203* [0.0857]	-0.211* [0.0831]
Health level	0.0944* [0.0457]	0.0212 [0.0456]	0.0106 [0.0494]	-0.00404 [0.0500]	-0.0109 [0.0536]
Self-esteem		0.0427*** [0.00841]	0.0325*** [0.00950]	0.0322*** [0.00952]	0.0279** [0.00965]
Depression/ Anxiety		0.0147 [0.0102]	0.0257* [0.0105]	0.0249* [0.0104]	0.0273** [0.0101]
Delinquency		-0.0646** [0.0211]	-0.0766** [0.0261]	-0.0759** [0.0261]	-0.0829** [0.0257]
Victim of bullying		-0.00707 [0.0119]	-0.0158 [0.0128]	-0.0118 [0.0138]	-0.00932 [0.0136]
Perpetrator of bullying		0.000665 [0.0160]	-0.0163 [0.0193]	-0.0162 [0.0192]	-0.0209 [0.0200]
Parental monitoring			-0.0456 [0.0675]	-0.0564 [0.0671]	-0.0769 [0.0673]
Positive parental attitude			0.0441 [0.0906]	0.0256 [0.0877]	0.0734 [0.0845]
Attachment to father			-0.024 [0.0302]	-0.0234 [0.0294]	-0.00947 [0.0284]
Attachement to mother			0.046 [0.0316]	0.0387 [0.0313]	0.0112 [0.0304]
Community environment				0.0155 [0.0173]	0.00719 [0.0171]
Positive relationship with friends				0.117 [0.140]	0.115 [0.138]
Cultural capital					0.262*** [0.0770]
Constant	-0.659** [0.206]	-0.852 [0.464]	-0.529 [0.528]	-0.986 [0.678]	-0.734 [0.700]
Number of children	435	421	334	326	306
R-squared	0.113	0.213	0.18	0.207	0.254

Standard errors in brackets. *** $p < 0.001$, ** $p < 0.01$, * $p < 0.05$. Standard errors were obtained by Huber-White estimation. 1) Male = 1. 2) Instrumental variables include frequency of parental visitation for children, parental divorce or separation, and domestic violence.

(Cho, 2010)에서는 우울과 학업성취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한 이러한 결과가 일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빈곤아동과도 유사한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와 동일척도와 측정방법을 사용한 2차 자료(서울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6학년 저소득층아동 대상)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곤아동의 경우도 우울불안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자세한 내용은 Appendix 1을 참조). 이것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우울불안과 학업성취와의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아동에게는 우울과 불안이 학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혹은 우울불안이 직접적인 요인이기보다는 제 3의 숨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한 여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기제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정외보호아동의 경우는 보호서비스에서의 경험과 보호유형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몇 가지 통제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변수들 중 보호유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정위탁 아동들이 다른 보호유형 아동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위탁 아동이 시설 아동에 비해 0.31~0.47 표준편차 정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그룹홈과 시설아동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배치횟수가 많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의 영향은 기대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자본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가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An, 2003; Kim, 2000; Kim et al., 2009; Kim & Lee, 2007)과 빈곤 아동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Shin & Kang, 2008)와는 다른 결과이다. 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이나 애착이 학업성취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따르겠으나, 부모(양육자)-자녀 간 애착관계가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아동의 인지발달을 높일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외보호아동의 경우 대리양육서비스 체계 내에서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사회적 자본으로 충분히 형성할 정도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혹은 가정외보호의 특성상 양육자가 빈번하게 바뀌어 양육자와의 관계가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될 만큼 아동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사회적 자본보다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인지자극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가 추가적으로 분석한 서울아동패널 2차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자세한 내용은 Appendix 1을 참조), 아동이 친부모와 생활하는지의 여부와 큰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해 사회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적 빈곤이 가족관계 및 생활에 안정성에도 영향을 주어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DiMaggio의 문화이동모델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 대상 아동들처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의 경우 고급문화를 접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계층이동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거나 적절한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아동에 비해 문화적 자본의 양은 적더라도 가정외보호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한계적 효과는 클 수 있다. 이 결과는 일반아동의 학업성취에는 효과가 없었던 문화적 자본이 빈곤아동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Kim(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문화적 자본이 계층이동의 열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DiMaggio(1982)는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DiMaggio는 저소득계층의 경우는 계층이동 열망이 상대적으로 큰 남자청소년에게 문화적 자본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이 있어 성차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업성취에 양육자의 교육적 관심이나 열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외보호는 일반가정의 환경에 비해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이것이 충분히 아동에게 제공되거나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심리적 요소인 자아존중감은 아동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외보호서비스에서는 아동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환경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대상처럼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에 있어 문화적 자본의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이는 나아가 사회적 자본과 비교해서도 문화적 자본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성취' 영역에 대한 설명변인으로는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보

다 직접적인 인지능력을 자극하는 문화적 혜택, 경험, 자극 등 문화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가정의 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자본을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도 교육과 평가의 방향이 지필고사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면접, 구술 등의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과 인지능력을 키우는 문화자본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아동과의 교육 불평등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실천에 주는 함의도 적지 않다. 가정외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자본을 지원하는 것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적 자극매체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시설아동보다 그룹홈 아동이, 그룹홈 아동보다는 가정위탁 아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종단연구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하겠지만, 일단은 친가정과 좀 더 유사한 환경이 교육적 성취에 유리하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아직 한국의 가정위탁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적절한 배치의 어려움, 위탁과기, 아동과 위탁가정의 매칭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지만 시설이나 그룹홈보다 친가정에 가까운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양호한 일반위탁가정은 개별화된 보호와 지원을 받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가정위탁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어 그 장점을 살려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가정의 보호형태에 대한 배치횟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기간은 오히려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는 양육환경이 안정적, 연속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육형태나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정서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학교 전학도 잦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습진도를 따라가거나 주양육자나 주변인, 친구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가정의 보호제도에서 '배치(placement)'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매뉴얼개발과 함께 전문가의 배치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의 보호아동의 생활지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행은 빈곤아동과 가정의 보호아동 모두에 있어 학업성취도를 현격히 낮추는 요인이다. 아동기는 자신보다 나

이가 위인 상급생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이나 그룹홈은 이러한 부정적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빈곤아동이나 가정의 보호아동 모두 관심과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방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생활에 대한 관심과 감독을 통해 비행에 접근하지 않도록 상담사나 지도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점검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우선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자료는 종단적 자료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한 종단적 자료가 구축된다면 인과관계가 좀 더 면밀히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가정외보호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샘플 부분에서도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세 유형 아동 모두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References

- An, W-H. (2003). Relationship analysis with social capital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3), 161-184.
- Blome, W. W. (1997). What happens to foster kids: Educational experiences of a random sample of foster care youth and a matched group of non-foster care youth.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4, 41-53.
- Bourdieu, P. (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K. Karabel & A. H. Halsey (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pp. 487-51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ehler, C., Orme, J. G., Post, J., & Patterson, D. A. (2000). The long-term correlates of family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 595-625.
- Chang, M-H. (2002). Cultural reproduction of social class: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student ability te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4), 223-251.
- Cho, H-I. (2010).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social support, hope, and depression

-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1), 161-181.
- Cho, Y-R., & Kang, H-A. (2011). The effects of child poverty on the school adjustment through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5(3), 369-390.
- Choi, Y. (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ed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 kinship foster car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285-314.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S. (1994).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M. E. (2001). Transition to adulthood for vulnerable youths: A review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policy. *Social Service Review*, 75(2), 271-291.
- Colton, M., Heath, A., & Aldgate, J. (1995).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children in foster care. *Community Alternatives*, 7, 15-36.
- Courtney, M. E., Piliavin, I., Grogan-Kaylor, A., & Nesmith, A. (2001). Foster youth transitions to adulthood: A longitudinal view of youth leaving care. *Child Welfare*, 80, 685-717.
- De Graff, N. D., De Graaf, P. M., & Kraaykamp, G.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9-201.
- DiMaggio, P., & Mohr, J.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Fanshel, D. & Shinn, E. B. (1978). *Children in foster car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stinger, T. (1983). *No one ever asked us: A postscript to foster ca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ield, J. (2003). *Social capital: Key ideas*. London: Routledge.
- Furnsteinberg Jr, F. F., & Hughes, M. E.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580-592.
- Hass, M., & Grayton, K. (2009). Sources of resiliency among successful foster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457-463.
- Heath, A., Colton, M., & Aldgate, J. (1989). The educational progress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9(6), 447-460.
- Huh, N-S. (2008). A study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of non relative foster care.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8), 207-233.
- Jackson, S. (1994). Educating children in residential and foster care. *Oxford Review of Education*, 20, 267-279.
- Jackson, S. & Martin, P. Y. (1998). Surviving the care system: Education and 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ce*, 21, 569-583.
- Jeong, S-W. (2002). The influence of original family relationship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 in institutional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145-168.
- Kahne, J., & Bailey, K. (1999).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youth development: The case of "I have a dream" program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1(3), 321-343.
- Kang, H-A. (2005). Coping with educational disadvantages of foster children: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foster par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5), 59-72.
- Kang, H-A. (2007).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on their involvement in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145-165.
- Kim, H-J. & Lee, B-H. (2007).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1), 125-148.
- Kim, H-S. (2011). The effects of parents'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children's educational

- achiev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poor and non-poor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 123-150.
- Kim, K-K. (2000). Social capital within family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Sociology of Education*, 10(1), 21-40.
- Kim, K-K. & Byun, S-Y. (2007). The impact of cultural capital on student achievement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23-51.
- Kim, K-M. & Chung, I-J. (2009). The influence of biological family's background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foster car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5(4), 93-120.
- Kim, K-S., Choi, S-B., & Lee, H-C. (2009).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school adaptation - focus on social capital i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5(2), 1-24.
- Kim, Y-H., & Kim, S-S. (2008). An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children'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6, 103-127.
- Lareau, A. (1987). Social class differences in family-school relationships: The importance of cultural capital. *Sociology of Education*, 60, 73-85.
- Lee, H-J. (2007). The effects of stress and attitudes of grandparents in kinship foster care perceived by the children under the grand parents' care on the children's school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4), 613-634.
- Lee, J-S., & Lee, Y-G. (2011). The effect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on of poverty, delinquenc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 65-88.
- McMillen, J. C., & Tucker, J. (1999). The status of older adolescents at exit from out-of-home care. *Child Welfare*, 78, 339-360.
- McNeal, R. B., Jr. (1999). Parental invest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 117-144.
- Mech, E., & Fung, C. (1999). Placement restrictivenes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among emancipated foster youth.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9(2), 213-228.
- Merdinger, J. M., Hines, A. M., Osterling, K. L., & Wyatt, P. (2005). Pathways to college for former foster youth: Understand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educational success. *Child Welfare*, 84(6), 867-896.
- Nho, C-R., Kim, M-Y., Park, E-M., Kang, H-A. & Shin, H-R. (2008).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aptation by developmental stages and types of foster care among foster care childr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8(4), 238-264.
- Nho, H-R. & Jang, J-S. (1998). A Study on the life condition and satisfaction of children residing in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 65-92.
- Parcel, T. & Menaghan, E. G. (1993). Family social capita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2), 120-135.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Sawyer, R. J. & Dubowitz, H. (1994).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 Neglect*, 18, 587-597.
- Shin, S-H. (2003). Building evidence to promote educational competence of youth in foster care. *Child Welfare*, 82(5), 615-632.
- Shin, W-Y. & Kang, H-A. (2008). The effects of poor adolescents's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4), 57-87.
- Sung, M-Y., Yi, S-H., & Lee, K-Y. (2001). A comparison of early school adjustment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53-64.
-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 (1997). Social capital and the generation of human capital. *Social Forces*, 75(4), 1343-1359.
- Trout, A. L., Hagaman, J., Casey, K., Reid, R., & Epstein, M. H. (2008). The academic status of children and youth in out-of-home ca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 979-994.

Yang, S-Y. (2009). Influence of the kinship foster family's psychological nucturing circumstanc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8), 193-224.

Yoo, A-J., Min, H-Y., & Kown, K-N. (2001). Ego-identity and psyco-social adjustmen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3), 135-149.

Zimmerman, R. B. (1982). *Foster care in retrospect*. New Orleans: Tulane University Press.

접 수 일 : 2012년 5월 7일
 심사시작일 : 2012년 5월 9일
 게재확정일 : 2012년 6월 18일

Appendix 1.

Factors of educational performanc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OLS estimation)

	Dependent variable: Level of educational performance				
	(1)	(2)	(3)	(4)	(5)
Gender ¹⁾	- 0.00811 [0.0396]	0.0224 [0.0389]	0.0512 [0.0428]	0.083 [0.0438]	0.135** [0.0421]
Health level	0.188*** [0.0273]	0.0788** [0.0297]	0.0685* [0.0327]	0.0632 [0.0337]	0.0679* [0.0326]
Self-esteem		0.637*** [0.0464]	0.553*** [0.0531]	0.504*** [0.0532]	0.471*** [0.0533]
Depression/ Anxiety		0.394*** [0.0869]	0.437*** [0.0919]	0.441*** [0.0929]	0.380*** [0.0902]
Delinquency		- 0.759*** [0.211]	- 0.388 [0.214]	- 0.292 [0.220]	- 0.0869 [0.216]
Perpetrator of bullying		- 0.0491 [0.0552]	- 0.105 [0.0584]	- 0.0715 [0.0598]	- 0.0413 [0.0564]
Victim of bullying		0.138* [0.0658]	0.0765 [0.0697]	0.0508 [0.0707]	0.0278 [0.0691]
Parental monitoring			0.185*** [0.0483]	0.163*** [0.0491]	0.0351 [0.0496]
Positive parental attitude			0.00333 [0.0859]	- 0.0274 [0.0869]	- 0.0595 [0.0826]
Attachment to father			0.0676* [0.0341]	0.0512 [0.0354]	0.0159 [0.0331]
Attachment to mother			0.0116 [0.0400]	0.0242 [0.0412]	0.034 [0.0386]
Community environment				0.0217 [0.0501]	- 0.0721 [0.0484]
Positive relationship with friends				0.202** [0.0733]	0.178* [0.0711]
Cultural capital					0.342*** [0.0346]
Constant	- 0.821*** [0.123]	- 2.114*** [0.301]	- 3.000*** [0.379]	- 3.594*** [0.466]	- 2.774*** [0.457]
Number of children	1,529	1,446	1,220	1,184	1,159
R-squared	0.034	0.179	0.179	0.178	0.248

Data: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the third wave, 2006)

*** $p < 0.001$, ** $p < 0.01$, * $p < 0.05$. Standard errors in brackets. Standard errors were obtained by Huber-White estimation. 1) Male = 1